

## I. 들어가는말

류영모(柳永模, 1890-1980)는 19세기 말엽 태어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신앙의 길로 들어섰고 평생 자신의 신앙과 그 실천에 기반 하여 하느님만을 골똘하게 생각하다 간 영성가요 사상가였다. 그의 신앙과 사상은 일제 말 정통기독교의 입문이후를 시작으로 많은 사상적 부침을 겪는다. 나라 잃은 설움에서 택했던 정통신앙은 아우의 죽음을 목도하고 오산학교에서 톨스토이의 사상을 접한 그에게 더 이상의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비 정통이라고 자처하며 기존의 기독교관에서 벗어난 열그리스도론<sup>1)</sup>을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교의 도그마를 버리고 맹목적인 추종을 떠나 자신만의 신앙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의 이러한 열그리스도론은 예수만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기독교를 극복하는 모델이 되었다.<sup>2)</sup> 이러한 기독교의 배타성의 극복은 자연스레 그를 타종교를 배척하지 않는 다원주의로 이끈다. 다석은 동양의 유불선(儒佛仙)을 자신의 신학과 접목시켰던 것이다.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고 확립하는데 동양의 전통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주체적인 신학을 만들어내었다. 기독교의 주체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봄이 일견 타당하나 또 한편으로는 이를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옳다고 보여 진다. 현대에 와서 논의되기 시작한, 그리고 앞으로 더욱 그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사상을 다석은 한국인의 의식에 맞추어 20세기 초에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석은 신론, 우주론, 인간론에 있어 그의 사상을 전개했고 많은 부분이 독창적이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동양종교전통의 이해와 수용이 없었다면 다석이 보여준 그 폭넓은 사유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다석은 기존의 서양의 기독교에 안주하며 그곳에서 위로를 얻지 못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즉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택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환경, 즉 아시아라는 한국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동양의 뼈에 서양의 골수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동양의 세 종교 유교, 불교, 도가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서양의 기독교를 이해하고 체화시키는 데 기반을 삼았다. 왜 기독교를 믿는데 동양의 종교가 필요했을까? 신자들이 한 종교에 대해 신앙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비판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맹신하는데 반하여 다석이 자신만의 독특한 신앙을 유지한 것은 기존의 기독교만으로는 분명 다석의 영성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다석은 동양의 세 종교 유불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토대위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위치시켰다. 그는 동양의 경전들을 구약으로 취급하며 그 속에도 하느님의 뜻이 내재해 있음을 역설하였다. 다석 스스로 동양의 경전을 수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대목을 보자.

내가 성경만 먹고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유교 경전도 불교 경전도 먹는다. 살림이 구

1) 예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느님이 주신 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생자는 예수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내신 성신이다라는 주장이다. 이정배 「다석유영모의 동양적 기독교 이해와 열 기독교론」, 『다석유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서울: 숲, 2002). 최인식, 「다석유영모의 그리스도 이해」, 『다석유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서울: 숲, 2002)참조.

2) 서현선, 「한국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종교적 대안들에 관한 연구」, 『서구 기독교의 주체적 수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p51.

차하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여기저기에서 빌어먹고 있다. 그래서 회랍의 철학이나 인도의 사상이나 다 먹고 다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멧감량(飽和量)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어서 내 건강이 상한 적은 거의 없다.<sup>3)</sup>

다석의 영성이 그만큼 진보적이고 폭이 넓었음은 그가 받아들인 동양의 사상 덕이었다. 동양의 종교 속에도 구원이 있음을 믿고 타종교를 경멸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타인의 종교를 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사상의 토대로 삼았던 다석의 태도는 그리스도교를 믿으며 무척이나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한 신앙심과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따라서 나는 본고에서 다석이 자신의 삶과 사상을 지탱하는데 있어 기독교에만 안주하지 않고 동양의 종교에서도 그 뿌리를 찾았던 사실에 주목하여 다석의 자아를 이루고 있는 다종교적 성향을 밝혀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다석의 사상의 맥을 짚어봄에 있어 다른 부분도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겠지만 동양적 사상이 다석에게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보아 다석의 자아와 사상형성에 내재하고 있는 동양적 요소를 고찰함에 이 논문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유교, 불교, 도교의 차례로 다석이 각각의 종교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 자신의 사상 속에 체화시켜 냈는가를 살피도록 하겠다.

---다석의 생애---

## 1. 1차회심(1905년) - 정통 기독교로 입문

1890년 3월 13일 아버지 류명근(柳明根)과 어머니 김완전(金完全) 사이 형제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난 다석은 16살 때인 1906년에 YMCA 한국인 초대 총무인 김정식의 인도로 기독교에 입신하여 서울 연동교회에 나가게 된다. 그의 평생의 삶과 사상적 기반이 될 기독교와의 조우이다. 다석이 신앙을 갖는 회심을 하게 되는 데는 개인적인 원인도 있지만 당시의 국운과 연관이 있다.

박영호는 “어느 신앙인들 값싼 신앙이 있으리요 만 류영모의 신앙은 값비싼 신앙이다.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산다는 속담처럼 류영모는 나라를 팔아서(빼앗기고) 믿음을 산 것이다.”라고 말한다.<sup>4)</sup>

이 시기에 다석은 청소년기에 겪는 영성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것은 무신(無神)에서 유신(有神)으로 이동하는 회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인 조건 (일제의 강점)과 개인적인 변화로 인하여 갖게 된 첫 번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나라 잃은 설움에서 오는 외롭고 허전한 마음과 이에 대한 다석 자신의 개인적인 성찰이 그를 1차 회심인 신앙의 길로 이끌었을 것이다.

## 2. 2차회심-비정통으로의 회심

다석은 15살에 연동교회에 나가며 처음으로 신을 대면한 이후 열성적으로 정통신앙의 길을 걷다가 23살이 되는 1912년에 들었던 기존의 신앙을 버리고 비정통으로의 회심을 경험한다.

3)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다석류영모어록』, (서울: 두레, 2006), p147-148.

4) 박영호, 『다석전기』 (서울: 교양인, 2012), p.78.

교회도 나가지 않고 정통신앙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우찌무라 간조(內村鑑三)와 같은 무교회주의자보다도 더 급진적인 사상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다석의 내면과 시대적 상황 등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을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다석의 변화에 있어 주목되는 면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의 혁신적인 변화이다. 다석은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를 믿는 이들은 예수만 그리스도라 하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것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믿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sup>5)</sup>

새로운 기독교관이 엮보인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믿던 바울로의 대속신앙도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救主)됨과 유일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석은 교회에 안 나가게 된 까닭을 말하며 자신은 자신대로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속알’(얼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sup>6)</sup>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회심이 이루어질 때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반대로 다석은 이때부터 예수를 구주(救主)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물론 그는 예수를 신으로 예배하지는 않더라도 스승으로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의 구주됨을 버리고 그만의 기독교관을 가지게 된 것은 신앙의 변화요 혁명인 지적인 회심이다. 이것은 타율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의 신앙에서 자율적인 깨달음의 신앙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다석의 변화에는 개인적인 배경이 있다. 다석의 형제는 처음 10여명에 이르렀으나 어릴 때 모두 사망하고 동생 영목만이 살아남았는데 그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만다. 류영모가 여러 형제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란 것이다.<sup>7)</sup> 바로 이것이 다석에게는 신앙을 갖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여러 형제들의 요절 가운데서도 류영모가 21살 때 19살에 죽은 영목의 급사는 류영모의 인생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가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사색하며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산학교에서 톨스토이의 사상을 접하고 정통신앙을 떠난다.<sup>8)</sup> 류영모가 그렇게 철저히, 그리고 열성적으로 믿던 정통신앙

5) 박영호, 『다석전기』 (서울: 교양인, 2012), p.131.

6) 박영호, 위의 책, p.132.

7) 형제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상실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이므로 어린 시절의 죽음에 대한 간접적 경험은 유년시절의 다석의 의식세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본다. 그가 그토록 절절하게 하느님을 찾으며 생을 이어간 데는 다석에게서 자꾸만 동생들을 뺏어가는 하늘에 대한 원망과 그것을 통한 승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석에게서 아픈 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더욱 맹렬한 신앙생활로 이끌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류영모의 호인 다석(多夕)은 물론 저녁을 한 번에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석양, 지는 해, 저녁, 곧 상실의 아픔을 반영하는 무의식의 일면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8) 다석이 톨스토이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비 정통으로 돌아서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그가 톨스토이로부터 받은 사상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전통적 교의를 거부한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신격화 거부이다. 셋째, 영과 육을 대립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최인식, 「다석 류영모의 그리스도 이해」, 『다석 류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서울: 숲, 2002), pp.173-179 참조.

을 버린 것이다. 류영모는 말한다.

“내가 22살 때만 해도 기독교를 전도하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십자가 못 박혀 흘린 보혈로서’라는 구절이 빠져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줄곧 외었는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어요.”<sup>9)</sup>

오산학교를 떠난 해(1912년)에 정통신앙을 버린 것이다. 류영모는 오산학교에 정통교회신앙을 전하고 자기는 떠나면서 정통교회신앙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나왔다.<sup>10)</sup> 교의 신앙에서 자각신앙으로의 변모가 이루어진 것이다.<sup>11)</sup>

다석은 이때 비 정통신앙으로 돌아서며 다원주의적 사고의 색채를 띠기 시작한다. 노자의 『도덕경』 과 불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다. 어려서는 유교사상을 익혔고 이 시기에는 동생의 죽음의 해답을 찾고자 불경에 심취하였다. 이 시기에 동양의 경전을 접한 것은 그의 자아와 사상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류영모는 아우의 죽음을 목도하고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그는 형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접하면서 불경과 『도덕경』 을 읽고 죽음에 대해 묵상하며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자 했고 이러한 그의 노력은 신앙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비 정통으로 회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 2.1 2차회심 이후의 수행

다석에게 있어 사상은 실천으로 이어짐으로 해서 의의를 갖는다. 김홍호에 의하면 동양의 사유의 특징은 ‘실천’에 있는데 류영모가 운명하기 전 마지막에 외친 ‘아바디(아버지)’란 말은 하느님 아버지의 밝은 빛 곧 진리를 보고 감탄하며 이에 따라 사는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는 그리스도교의 동양적 이해라고 한다.<sup>12)</sup> 여기서 김홍호는 류영모가 서구의 그리스도교를 실천이 특징인 우리 동양의 사유 위에서 재해석해냄으로써 실천 가능한 우리의 그리스도교로 만들어놓았다고 본다. 동양적 그리스도교로 토착화 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는 하느님 아버지의 밝은 빛인 진리에 따라 사는 구체적인 길 십자가의 도(道)로서 류영모가 식색지명(食色知名)을 끊는 일식(一食) 일좌(一坐) 일언(一言) 일인(一仁)을 제시했다고 보았다.<sup>13)</sup> 즉 그가 평생을 이어온 수도적인 자세가 그의 사상을 형성하였고 그의 종교적 자아를 일깨워 나갔던 것이다. 다석은 침묵하면서 깊이 자신을 드러다 보는 내관(內觀)적 수행을 강조했다.<sup>14)</sup> 이정배는 그리스도교 역시도 대상적 믿음의 종교이기 이전에 수행적 깨침의 종교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믿음과 수행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한다.<sup>15)</sup>

9) 박영호, 『다석전기』 (서울: 교양인, 2012), p.131.

10)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 上 (서울: 두레, 2001), p.188.

11) 박영호, 『다석전기』 (서울: 교양인, 2012), p.134.

12) 김홍호, 「류영모, 기독교의 동양적 이해」, 『다석 류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서울: 숲, 2002), pp.11-37.

13) 오정숙, 『다석 류영모의 한국적 기독교』 (서울: 미스바, 2005), pp.17-18.

14)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 공부』 2권(서울: 숲, 2001), pp.68-71.

15) 이정배, 「다석신학속의 자속과 대속, 그 상생적 의미」, 『빈탕한데 맞혀놀이』 (서울: 동연,

(1) 하루살이, 오늘살이

다석에게 있어 삶은 하루 동안에 일생을 산다는 ‘하루살이’요 ‘오늘살이’다. 날마다 저녁에 잠을 잠으로써 죽음에 들어가고 아침이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였다.

잠은 언제나 하느님 나라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다.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 내려온다.<sup>16)</sup>

다석은 『다석일지』에 자기가 산 날을 계속 적어갔는데 82세에 3만 날을 살고도 10년을 더 살았다. 선생은 하루를 ‘오늘’이라 하였다. 오늘은 하루라는 뜻도 되지만 ‘오’는 감탄사요 ‘늘’은 영원이라는 뜻을 갖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류영모는 “삶과 정신이 ‘늘늘이’ 늘어나고 늘어나서 늘늘이야(닐리리야) 신난다”라고 했다.<sup>17)</sup> 하루하루 속에 영원을 살아가는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이다.<sup>18)</sup>

다석은 하루를 ‘할우’라고도 했다.

하루란 뜻은 하느님을 위하여 일할 오늘을 말한다. 할 우(上)다. 우(上)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을 위하여 일거리를 받아 놓은 오늘이란 우(위)이기도 하다.<sup>19)</sup>

하루를 ‘할우’라 하여 ‘하느님 계신 위로 오르는 날’로 보았던 것이다. 다석은 오늘 하루의 시간에서 영원으로 솟아오르려고 하였다. 그는 날마다 날(日)을 타고 하느님에게로 영원으로 솟아오르기를 바랐다.

그러면서 그는 삶의 실상을 ‘오늘 여기 나’에서 볼 것을 중용하며 “오늘 오늘 산 오늘!”이라고 외친다.<sup>20)</sup> 다음 글에 보다 명료하게 나타난다.

---

2011), p.85.

16)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공부』 2권(서울: 솔, 2001), p.56.

17) 박재순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서울: 홍성사, 2013), p.62.

18) 김홍호, 「유영모, 기독교의 동양적 이해」, 『다석 유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서울: 솔, 2002), p.18. 그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논어) “사람의 생명이 호흡 간에 있나니라”(불경, 42장경)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성경 마태복음)의 글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오늘살이’를 중시한다는 것을 예시하며 그의 사상의 근거를 대고 있다.

19) 박영호, 『진리의사람 다석류영모』 下(서울: 두레, 2001), p.173.

20) 이기상, 「생명은 웅일름을 따르는 몸살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서울: 나뉘, 2010), p.141.

하루 동안에도 열백 세계가 갈릴 수 있고 하루라는 것은 늘 오늘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안다면 오늘에 자족하지 않을 수 없고 자활 아니 할 수 없다. 만반 사물로 인연이 닿는 대로 만나는 사람 사람, 열리는 세계 세계에 오직 오늘, 신성한 오늘, 나의 진여한 생명력을 지성으로 발휘하여 한갓 나를 대하게 된 그들의 생명력과 투합일치하기를 바란다.<sup>21)</sup>

다석의 ‘하루살이’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느님을 만나는 듯 살아가는 것이다.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 ‘하루살이’다.<sup>22)</sup>

## (2) 일언인 일좌식(一言仁 一坐食)<sup>23)</sup>

다석의 도(道)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일좌식 일언인이다. 일좌(一坐)라는 것은 언제나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다. 이를 위자(危坐)라고도 하고 정좌(正坐)라고도 한다. 일식(一食)은 일일일식이다. 일언(一言)은 남녀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일인(一仁)은 언제나 걸어 다니는 것이다.<sup>24)</sup> 이러한 수행을 통하여 다석은 진리의 세계에 이르고자 했다. 나는 앞서 2차 회심을 분석하며 다석이 톨스토이로부터 받은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다석의 금욕생활은 다석이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로부터 영향 받은 바가 크다. 일일일식을 한 것에서부터 그러하다. 간디는 금욕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①마음의 결심과 기도 ②먹는 것의 절제, ③ 부부가 각각 다른 방을 쓰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류영모도 이와 비슷하게 ①하느님에의 복귀, ②하루 한 끼 먹기, ③널빤지 위에서 잠자기를 실천하였다.<sup>25)</sup>

다석의 수행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교인이면서도 수도(修道)의 끈을 놓지 않아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기반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 ① 一言

다석은 결혼하여 자식을 넷(3남1녀)이나 낳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성생활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며 아내 김효정과 같은 방에서 아래 윗목에서 따로 자며 오누이처럼 지내기로 하

21) 류영모, 「오늘」, 『청춘』 제14호, 1918; 류영모 지음, 박영호 편, 『오늘』 (서울: 성천문화아카데미, 1993), pp.15-16.

22) 김흡영, 『가운뎃기: 다석 류영모의 글로벌 한국신학 서설』 (서울: 동연, 2013), p.39.

23) 김홍호의 해석아래서는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일인 것처럼만 생각되던 십자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나의 삶으로 다가서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일좌식 일언인’의 식색지명을 끊는 구체적인 나의 삶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정숙, 『다석류영모의 한국적 기독교』 (서울: 미스바, 2005), p18 재인용.

24) 김홍호, 「류영모, 기독교의 동양적 이해」, 『다석 류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서울: 솔, 2002), p.13.

25) 강돈구, 「종교 사상의 계보와 종교 사상사적 의의」, 『다석 류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서울: 솔, 2002), p.345.

는, 해혼(解婚)을 선언하고 죽을 때 까지 실천하였다.<sup>26)</sup> 자신이 몇 번의 성생활을 한 것은 하느님과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라며 자신도 몇 번 실수를 하였지만 진정으로 하느님에게로 이르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성생활도 ‘제나’의 입장에서 수성(獸性)을 벗어나지 못한 원초적인 욕망이라 하였다. 다석은 몸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잘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잠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빌려 쓴 신발과도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기에 이 몸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성행위는 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일정시점 이후 평생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류영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녀의 정사를 쾌락이라고 하지만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도 51살까지는 범방(犯房)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주 끊었습니다. 아기 낳고 하던 일이 꼭 전생에 하던 일같이 생 각됩니다. 정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sup>27)</sup>

류영모는 “남녀의 사랑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실 진짜 이성(異性)은 하느님 뿐 이시다. 사람은 모두가 상대적으로 나서 죽는 동성(同性)이다. 절대성의 하느님만이 나지 않고 죽지 않는 거룩한 이성의 님 이다”라고 하였다. 남녀의 사랑이 종당에는 하느님의 사랑에까지 도달할 때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다.<sup>28)</sup> 류영모는 혼인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떨어지는 행위라 하였고 혼자 사는 것을 이상이라고 말하였다. 결혼이나 성생활에 대한 다석의 견해의 변화는 2차 회심 이후 3차 회심이 있기 이전에 일어났다.

## ② 一仁

그는 1928년부터 YMCA에서 연경반 강의를 하였는데 그의 집에서 강의 장소가 매우 멀었다. 대략 1시간이 넘는 이 거리를 항상 걸어 다니며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다. 몇 시간씩 걸어도 지치는 법이 없었다. 다석은 가급적이면 먼 거리도 대중교통 대신 걷곤 하였는데 이것은 건강에 대해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현대에도 건강법을 위해 권장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것은 수행이라기보다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도 볼 수 있고 다석의 수행이 지나친 고행이나 금욕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 ③ 一坐

불교에서 수행할 때 정좌하듯이 널빤지 위에 올라가 무릎을 앞으로 모아 엉덩이를 땅에

26) 51살 때 부터 그러했는데 이 시기는 그가 3차 회심을 하기 바로 직전의 시기이다.

27) 박영호, 『다석전기』 (서울: 교양인, 2012), pp.352-353.

28) 박영호, 위의 책, pp.353-354.

대고 앉는 다소 기이한 자세를 취하고 항상 그렇게 앉아서 책을 읽고 밥을 먹고 손님을 맞았다고 한다. 다소 경직된 자세 속에서 올바른 정신을 유지하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는 수행의 자세였다고 보여 진다. 그는 널빤지에서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취침 시에도 널빤지 위에서 잤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sup>29)</sup> 첫째는 자는 동안 등뼈를 고르게 펴려는 건강상의 이유였고 둘째는 널빤 위에서 삶으로써 죽음과 친하려는 신앙상의 이유였다. 류영모는 자신을 일컬어 ‘백관거사’라 하였다. 잣나무 널빤위에 사는 선비라는 뜻이다.

#### ④ 一食

그는 하루에 한 끼, 저녁만 먹었다. 그의 호 다석(多夕)도 저녁에 세 번의 식사를 한꺼번에 한다고 하여 붙여진 것인 것처럼 그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하루 한 끼만 먹는 것을 죽을 때까지 실행했다. 이것은 성(性)과 함께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가장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인 식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였다. 그는 욕심으로 먹기 때문에 과식하고 과식하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도 병들어 죽어간다고 보았다. 다석은 “끼니는 꼬니(끊이)라며 먼저 끊고 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끊지는 않고 잇기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주 자연세계도 인간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속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주도 사람도 탈이 나면 먹기를 끊고 몸과 마음을 곧게 해야 낫는다고 했다.<sup>30)</sup>

류영모가 한 끼를 먹기 시작하던 때는 51살이던 1941년 2월 17일 부터이다.<sup>31)</sup> 몸이 제멋대로 설치지 않게 하려면 몸을 알맞게 절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며 사람은 단식을 하고 단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41년 2월 17일부터 1981년 2월 3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년 동안 일일일식(一日一食)을 하였다.

하루 한 끼니만 먹으면 나머지 두 끼니 때 나는 내 몸과 내 살을 먹는 셈이 된다. 그것은 내 몸을 제물로 바치는 산제사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다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극치는 하루에 한 끼니씩 먹는 일이다. 그것은 정신이 육체를 먹는 일이며 내 몸으로 산제사를 지내는 일이기 때문이다.<sup>32)</sup>

더 나아가 다석은 식사가 곧 제사라고 말한다.

밥 먹고 자지 말고 밥 먹고 깨어나도록 밥을 먹어야 한다. 밥은 제물이다. 바울은 너희 몸은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우리 몸이 하느님의 성전인 줄 아는 사람만이 밥을 먹을

29) 박영호, 앞의 책, p.363.

30) 조현, 『울림』 (서울: 한겨레출판사, 2014), p.67 재인용.

31) 박영호, 위의 책, p.346.

32) 박영호 편, 『다석어록』 (서울: 홍익재, 1993), p.52.



수 있다. 밥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속에 계시는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예배요 미사다. 내가 먹는 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물을 도적질하는 것이다.<sup>33)</sup>

다석에 의하면 인생은 짐승처럼 자기의 육체를 바치는 밥이 아니다. 인간은 밥을 먹고 육체를 기르고 이 육체 속에 다시 성령의 말씀이 영글어 정신적인 밥인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인간이 제물이 되는 것은 육체적 제물이 아니라 영적인 제물이 되는 것이다.<sup>34)</sup> 다석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일식을 실천했다.

### 3. 3차회심-重生체험

다석은 1942년 류영모가 52살이 되는 해인 1942년 1월 4일의 일이다. 류영모는 16살(1905년)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영적 생활을 시작한지, 신앙생활을 한지 꼭 38년째가 되는 해다. 16살 때 연동교회에 나가며 ‘정통’신앙으로의 회심을 했다면 이제는 하느님 품안에서 평화를 느끼며 안식을 찾는 또 한 번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다석 스스로 언급한 바 있듯이 중생의 경험이고 신에 대한 인격적이고 친밀한 경험이다. 3차 회심의 큰 의미는 ‘비정통’으로 2차 회심을 했던 다석이 그리스도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채, 어찌 보면 다시 ‘정통’의 그리스도교의 테두리 안에서 신에게 자신을 내어놓는, 또 복종하며 영적으로 재탄생하는 경험을 했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는 다석이 주류 그리스도교와 충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다석은 이러한 경험이 있고 난 후 일 년 남짓 지나지 않아 4차 회심을 하는데 이 때는 그 경험의 범위가 그리스도교에서 주체와 전체를 통합한 보편철학으로, 그리고 한국적인 철학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이 3차 회심은 구경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르기 전에 ‘그리스도교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수를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석이 2차 회심을 하며 정립한 ‘얼그리스도론’ 사상을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얼’의 체득화를 통해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장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얼’에 대해 자각하고, 예수님이 그 ‘얼’을 발견하여 하느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다석 자신도 회심을 통해 자신 내면의 ‘얼’을 깨닫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다석에게 있어 회심이란 결국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씨인 ‘얼’을 찾고 깨닫는 도정인데 1,2차 회심을 통해 신앙의 시작과 성숙을 이루고, 중생경험을 하면서 신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 신과의 연관 속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실존적인 자각을 한 것이다. 다석은 자신의 ‘속알’을 기르고, 생각을 띄워 ‘하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거듭남(중생)의 뜻이라고 했다.<sup>35)</sup> 즉 비천하게 된 실존적 인간 천인(賤人)이 본래의 모습인 하느님의 형상을 가진 하늘사람 천인(天人)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sup>36)</sup> 엄밀히 말하면 자각이고 깨달음인 본래적인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는 하늘에 속한 사

33) 박영호, 앞의 책, p.186.

34) 이기상, 「생명은 웅일름을 따르는 몸사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서울: 나눔, 2010), p.167.

35) 류영모 강의, 박영호 풀이, 『다석마지막 강의』(서울: 교양인, 2010), pp.316-317.

람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삼는 권위가 부여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든든한 뒷받침으로 다석은 이제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며, 구체적으로 중생의 의미를 말한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자꾸 생각이 깨고 깨고, 일어나 자라는 대로 깨고 깨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깨 나가는 게 거듭나고 거듭나고 거듭나는 것이에요.<sup>37)</sup>

다석은 자신이 중생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중생기’에 적었다.<sup>38)</sup>

#### 4. 4차회심 - 신비체험

다석은 중생경험, 3차 회심을 경험한 후에 한 번 더 회심을 한다. 1943년 53세 때이다. 다석은 북악 산마루에서 침철천잠투지(瞻徹天潛透地)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다석의 4차 회심은 그의 의식이 우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그가 주체와 전체의 통일을 이루고 보다 큰 나를 깨달았다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다석은 이 4차 회심을 하고 나서 주체와 전체를 통일한 보편철학을 전개하고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철학을 합쳐 아우르는 큰 틀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 시기 이후부터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철학에 맹렬한 관심을 쏟기 시작하여 한글로 철학하는 한글 철학의 기틀을 다진다. 천지인 합일이라고 하는 동양적인 경험이 그에게 의식의 확대와 사상의 결합을 가져다 준 것이다.

다석은 북악 산마루에서 침철천잠투지(瞻徹天潛透地)의 경험을 한다. 1943년 2월 15일 류영모는 이른 아침에 일식을 보고자 서울 북악에 올랐다. 그 때 일종의 신비체험을 경험하고 순간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구를 짓는다.

瞻徹天 潛透地

申身瞻徹極乾元氣· (신신침철극건원기·)  
沈心潛透止坤軸力· (침심잠투지곤축력·)<sup>39)</sup>

뚫어 뵈오니 하느님 뚫어 잡겨 땅 가운데

몸이 하늘 까짓 것 솟구쳐 올라 뵈오니 하느님 아버지 일님이시오  
맘이 사뭇 내리꽃히어 잠기니 땅굴대 중력(重力)점에 멈춘다.

박영호는 위의 시에 다음과 같은 해석을 덧붙였다.

‘신신(申身)’은 미꾸라지를 벗고 용이 되는 것이다. 육신을 극복하여 정신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신신’이다. 상대를 초월하여 절대에 통하는 것이 ‘철극(徹極)’이

36) 김흡영, 『가운짜기: 다석 류영모의 글로벌 한국신학 서설』 (서울: 동연, 2013), p.117.

37) 류영모 강의, 박영호 풀이, 『다석마지막 강의』 (서울: 교양인, 2010), p.317.

38) 「부르신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글로 『성서조선』 157호 (1942년 2월호)에 나온다.

39) 박영호, 『다석전기』 (서울: 교양인, 2002), p.404.

다. ‘척(徹)’은 뚫린다(通)는 뜻이다. ‘극(極)’은 노자의 무극(無極)에서 가져온 것이며 절대를 뜻한다. ‘건원(乾元)’은 『주역』 건괘에 나오는 말이며 하느님 아버지를 뜻한다. ‘기주(氣主)’는 성령의 님, 곧 열님이다. ‘기(氣)’는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의 기다. 「」는 주(主) 자다. 류영모는 님이라고 하였다. ‘침심(沈心)’은 마음이 잠긴다는 뜻이다. ‘잠투(潛透)’는 잠기어 뚫는다(通)는 뜻이다. ‘지(止)’는 머물다. ‘곤축(坤軸)’은 땅의 굴대 곧 지축(地軸)이다. ‘역(力 ·)’은 지구의 중심점을 뜻한다. 지구 중력의 중심점이다.<sup>40)</sup>

이 경험은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가 일치하여 하나 되는 것이다. 개체에서 벗어나 우주의 소산이라는 우주 의식을 지니는 것이다. 이 하늘과 땅을 뚫어 한 통속에 이르는 체험은 선도에서 높은 경지인 통기법(通氣法)의 삼합(三合)단법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한다.<sup>41)</sup> 한시 첫 부분은 ‘몸성히’, 둘째 부분은 ‘맘놓이’와 연관이 있다.<sup>42)</sup>

또한 이 경험은 우주적으로 하늘의 원기와 땅의 기운이 다석의 몸과 맘에서 하나로 통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몸’, ‘맘’, ‘얼’이 하나로 뚫리는 경험을 한 것이다. ‘몸’은 땅에 속한 거고 ‘마음’은 사람에게 속한 거고 ‘얼’은 하늘에 속한 것인데 ‘몸’, ‘맘’, ‘얼’이 하나로 통하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것이다. ‘몸’은 ‘맘’과 ‘얼’이 깃든 거룩한 집으로 살아나고 ‘맘’은 ‘몸’과 ‘얼’이 소통하는 연락하는 자리로 살아나고 ‘얼’은 ‘몸’과 ‘맘’을 살리는 주체인 ‘참나’로 살아난 것이다.<sup>43)</sup> 육체와 욕망에 붙잡혀 살아온 ‘체나’가 아닌 우주에 가득 찬 허공과 하느님의 참 ‘얼’이 바로 자신임을 다석은 이때 깨닫는다. 이때 다석은 이 경험을 통해 네 번의 회심을 완결한다.

다석은 4차 회심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의 완결을 이룬다. 다석은 이 경험을 통해 한민족의 전통철학을 담은 대중교의 삼일신고에 나오는 ‘성통공완자 영득쾌락(性通功完者 永得快樂, 안으로 본성을 통하고 밖으로 사명을 이룬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sup>44)</sup> 그는 천지인 합일경험을 한 후 귀일사상과 회통의 사상을 제시했다. 한국의 ‘한’사상과 그리스도교의 초월적 ‘하나님’ 사상이 결합한 것이다.<sup>45)</sup> 류영모의 철학은 ‘한’사상이다. 그는 평생 ‘하나’를 추구하고 ‘하나’를 살고 ‘하나’에 이르려 했다. 모든 문제는 ‘하나’로 귀결되고 ‘하나’만 알고 ‘하나’를 세우면 된다고 하였다.<sup>46)</sup> 물론 여기서 ‘하나’를 쉽게 하느님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다석이 천지인 합일 경험을 하고 난 후의 ‘하나’는 단순한 인격적인 하느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신관과 천지인을 한데 아우르려는 사상이 결합한 다석만의 경험적 개념이다. 천지인 합일 사상은 한국고대의 천지인 삼재 사상의 회복이며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사상을 주체적, 토착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여기서 크게 보면 하늘과 땅은 우주이고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끈게 서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천지인 합일을 이루는 존재다. 이것은 주체이고 개체인 나와 전체가 하나의 합일을 이루는 류영모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그의 신비경험은 전체와 하나 되는 그의

40) 박영호, 위의 책, p.405.

41) 김흡영, 『가온찍기: 다석류영모의 글로벌 한국신학 서설』 (서울: 동연, 2013), p.23.

42) 김흡영, 위의 책, p.208 각주 9번.

43) 박재순,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서울: 흥성사, 2013), pp.59-60

44) 조현, 『울림』 (서울: 한겨레출판사, 2014), p.63.

45) 박재순, 『씨알사상의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성격』,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서울: 나늬, 2010), p.38.

46)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다석류영모어록』 (서울: 두레, 2002), p.40.

사상의 완결이자 전진이고 사상이 경험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 -- 다석의 다원주의 --

다석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예수 석가는 우리와 똑같다. .... 유교, 불교, 예수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다. 오직 정신을 하나로 고동 시키는 것뿐이다.

다석은 동양종교 사상 속에서 기독교 사상을 새롭게 형성하고 기독교 사상의 관점에서 동양종교 사상을 새롭게 해석했다.

나의 정신은 “모세와 예수, 그리고 공자와 맹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유교>

다석은 어려서부터 서당에 다니며 4살 때 천자문을 떼고 소학교에 입학해서 맹자를 배웠다.

### (1) 부자유친(父子有親)

다석은 유교라는 한국적 정서를 사용하여 하느님과 예수의 관계를 부자유친(父子有親)이라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하나로서 설명하고 있다. 다석은 예수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건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어이 (예)수이  
뚜려시  
하옹님 보시고  
「맨침브터 내 모신  
아버지라」 부르심  
나는 이에 숨쉬므로  
「뚜려시 아들로  
스름나이다」 는 말씀.<sup>47)</sup>

정양모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쳐 썼다.

47)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공부』 2권(서울: 숲, 2001) pp.522-523.

**예수**

**뚜렷이 하느님을 보시고**

**「맨처부터 내가 모신 아버지」라 부르셨다.**

**나도 「이에 숨쉬므로 뚜렷이 아들로 살겠나이다」라는 말씀이다.<sup>48)</sup>**

다석은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상’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예수처럼 뚜렷하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한다.<sup>49)</sup> 이에 예수는 하느님을 깊이깊이 경험하고 시종일관 아버지로 섬겼다는 것이다. 위의 글은 다석이 코로 숨쉬 듯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마냥 하느님의 아들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부자유친’의 영성을 나타내주는 시다.<sup>50)</sup>

이러한 지극한 효는 하느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에게만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저 한옹님에게 하는 효라야 만백성도 이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한옹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효자인 것입니다. 한옹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예수처럼 한 이가 없습니다.<sup>51)</sup>

다석은 1957년 3월 1일 일기에서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절대자인 그 ‘하나’가 내게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름으로 내사’ 즉 사람으로 내서 나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람의 사명을 주신 이가 곧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신 것같이 ‘아들 삼으시다’이렇게 됩니다.<sup>52)</sup>

다석은 예수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건에서 부자유친의 진리를 발견하였다.

예수가 제일 좋다. 부자유친 한아님 아버지와의 부자유친이 그리스도교다. 유교를 제치고 한아님 아버지와 부자유친을 세웠다. 한아님 아버지께 유친하자 드리 덤벼야 한다. 불서는 사교무친이다. 한아님 아버지의 부자유친은 신약전서에 나타나 있다.<sup>53)</sup>

정리하면 다석의 그리스도론은 예수가 하느님을 아버지(아빠)라고 부르는 사건으로부터 출

48) 정양모, 『나는 다석을 이렇게 본다』 (서울: 두레, 2010), p.32.

49) 류영모 지음, 다석학회 편,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6), p.914.

50) 정양모, 『나는 다석을 이렇게 본다』 (서울: 두레, 2010), p.42.

51) 류영모 지음, 다석학회 편,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6), p.916.

52) 류영모 지음, 다석학회 편, 위의 책, p.460.

53) 김진, 『다석류영모의 종교사상』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2012), p.170; 박영호, 『다석 류영모의 생애와 사상』 下(서울: 문화일보사, 1996), p.313

발한다. 그는 이를 부자유친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또한 ‘몸나’에서 ‘얼나’로의 변화사건이다.<sup>54)</sup>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면서 하나다. 부자불이(父子不二)다. 이것이 부자유친이라는 것이다. 맨첨 이고 참되신 아버지 하느님을 그리워함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다.<sup>55)</sup>

## (2) 효의 신학

공자가 주나라의 예로 복귀하고자 했는데 주나라는 종법질서가 갖추어진 나라다. 여기서 나오는 인간의 유대관계의 기본은 가족주의적인 것이다. 공자는 이 가족주의를 나라로 확대하고 싶어 했는데 그 기본은 친친(親親)이다. 즉 자기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외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므로 결국 효의 확대로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났을 때 이것이 인(仁)이라고 했다. 인(仁)에 이르는 방도가 충(忠)과 서(恕)인데 결국 자신에게 충실한 마음이 타인의 마음까지 알아차리는 것이 이것이 인을 실현하는 방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시) 아버지가 소를 훔쳤는데 이거 고발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직한 거냐?  
공자가 아니다. 부모를 감춰주는 것이 인이다. -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 인간의 본래 마음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선(善)이다. 직(直)이다. - 기독교와 연결해서 사랑을 이야기 한다.

이것이 맹자로 이어지면 성선설로 이어진다.

우물에 아이이야기- 사단이 있다. ----> 확대되면 인의예지가 된다.

유교에서는 이 효라는 것이 지니는 의미는 이렇게 크다.

목가- 겸상애 교상리 모든 사람을 내 아버지 같이, 아비가 없다.

양주- 내몸에 털도 뽑지 않는다. - 임금이 없다

유교는 군, 사, 부 가족주의 이런 거를 강조했다. 이런 바탕위에서 다석은 효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성을 실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방도라고 보았던 것이다.

## (3) 하느님이 나를 낳았다.

54) 김진, 앞의 책, p.181.

55) 류영모 지음, 박영호 편, 위의 책, p.59.

‘하느님이 내게 속나(德)를 낳았다’<sup>56)</sup> 『논어』, 天生德於予 고 하였다. 다석은 이를 공자도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란 생각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있다고 보았다. 다석은 그 깨달음의 주체를 ‘얼의 나’라고 하였다.<sup>57)</sup>

제나 -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몸뚱이 식과 색을 탐할 뿐이다.

얼나 - 하느님이 태어날 때 부여한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

하느님이 태어날 때 누구에게나 얼의 나를 부여하였으니까 깨달음에 잘 이르게 되면 모두가 하느님 아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4) ‘얼’ 58)그리스도론

다석은 예수를 ‘신’으로 보지 않는 데서부터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기 시작한다. ‘몸’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와 다르지 않고 ‘얼’을 깨친 한에서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보기 시작하면서 신으로 숭배되는 예수를 부인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얼’을 모두가 지녔고 이 ‘얼’이 다름 아닌 독생자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 ‘얼’을 깨달으면 누구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석의 이러한 예수 이해는 한국적인 지역성과 시대성을 반영한 해석이다.

예수를 신으로 보지 않는 이해는 예수의 ‘몸’은 ‘얼’과 상대되는 의미를 지녀서, 예수 역시 탐진치의 삼독을 지니고 수성(獸性)의 모습을 지녔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우리 몸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은 류영모가 예수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를, 우리 경험영역 바깥에서 이해하던 종래의 예수 이해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 몸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를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고 나아가 우상숭배이다.<sup>59)</sup> 이것은 다석 스스로 한국인이 쉽게 인간이 신으로 불리게 되는 과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메시아를 갈망하던 히브리 백성에게는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신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지리적 환경과 시대적 환경이 전혀 다른 한국인에게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기가 쉽지 않다고 다석은 생각하여 인간을 신으로 숭배

56) 『논어』, 天生德於予.

57) 박영호, 『예수와 기독교』, (서울: 두레, 2006), p155-156.

58) 박명우는 그의 논문에서 얼에 대해 세심한 고찰을 하고 있다. 유학자 이기동도 내 육체가 가진 “살려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가진 살려는 마음과 동일하며 살아 있는 모든 물체에 존재하는 그것과도 같다고 했다고 한다. 따라서 박명우는 성(性)은 내 삶을 유지해간다는 측면에서는 ‘개체적’이지만 다른 생명체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이라고 지적한다. 류영모에게 이 ‘성’에 비견되는 참 생명의 존재가 바로 ‘얼’이다. 나아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불성(佛性)에서 ‘성’의 역할을 주시한다. 류영모가 생각하는 불성이란 유교적 ‘성’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하게 인간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류영모는 유교와 불교의 특정 개념을 통해 인간의 특성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했다. 박명우, 「한국적 지역 기독교 신학의 구상」, 『종교간의 대화』 (서울: 현암사, 2009), p.392. 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Myung-Woo Park, *Building a Local Christian Theology in the Context of Korean Religious Pluralism: A Critical Analysis of the Theology of Ryu Yonmo*(University of Edinburgh, 2001), pp.138-140참조.

59) 박명우, 「한국적 지역 기독교 신학의 구상」, 『종교간의 대화』 (서울: 현암사, 2009), p.392.

하는 것은 이상승배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런 한국적인 맥락에서 다석은 예수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본다. 한편 예수와 우리 속에 있는 ‘얼’은 동일한 ‘얼’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불교의 불성(佛性)사상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한다. 누구나 깨달음의 가능성에 열려 있는 상황을 다석은 그리스도교인에게도 열어 놓은 것이다.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다석의 얼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삼위일체란 하느님, 예수, 성령을 다른 위격의 하나의 하느님으로 보는 것인데 다석은 성부와 성령은 하느님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를 하느님의 다른 위격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자가 지니던 하느님의 위격은 성령, 다석의 언어로 ‘얼’이 독생자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예수의 위격을 대신하였고 성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정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신학의 틀에서는 다석의 ‘얼그리스도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면으로 ‘정통’그리스도교의 입장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부자유친으로 말하는 예수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다석이 찾아낸 예수의 배타적 성격은 하느님의 외아들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본보기라는 데 있다.<sup>60)</sup> 유교가 군신관계와 부자관계를 지배하던 한국에서 충과 효의 위치는 가치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한국적인 세계관과 한국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다석은 하느님과 예수,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 1) 몸나, 얼나

사람의 아들 예수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몸나’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의 몸은 영생할 수 없고 부활할 수 없다. ‘몸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인간과 하등의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혈육으로 태어난 것이다.

어머니 마리아 나신몸  
한옹님 아들 예수<sup>61)</sup>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몸이지만 한옹님 아버지를 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sup>62)</sup>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부자유친을 가장 지극하게 실천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들과 다른 점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얼’<sup>63)</sup>을 지극한 효심으로 발휘하였기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지만 신이 아닌

60) 박명우, 위의 글, p.394.

61)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공부』 7권(서울: 숲, 2001), p.204.

62)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위의 책, p.205.

63) ‘얼’은 순수 우리말로써 ‘정신’을 뜻한다. 그리스도교적으로 바라보면 하느님의 ‘얼’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신실하신 하느님의 ‘영’, 즉 ‘성령’이시다. 김진, 『다석류영모의 종교사상』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12), p.9. 특히 얼은 무(無),공(空),허(虛)를 존재나 유(有)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는 다석이, 서구적 이성과 구별 짓는 ‘영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이기상, 「존재에서 성스러움으로」, 『다석 류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서울: 숲, 2002), p.436.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과 같으면서 다른 것이 예수이다. 즉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얼’을 잘 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석의 그리스도관의 핵심이며 그가 ‘비정통’으로 취급받는 근거이기도 하다. 우리 보통사람들은 ‘제나’를 버리고 ‘얼나’<sup>64)</sup>를 키워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으니 예수 또한 ‘몸나’를 부정하고 ‘얼나’를 키워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 2) ‘얼’<sup>65)</sup>그리스도론

예수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요 12:45)라고 하였을 때의 ‘나’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얼)를 가리킨 것이다. 다석은 예수뿐만 아니라 ‘얼’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생각하였다.<sup>66)</sup> 누구든지 하나님과 한생명이 되는 ‘얼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얼나’를 잘 밝히면 누구든지 독생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다석의 그리스도관을 ‘얼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른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동일 본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님(主一)’, 즉 ‘얼나’이다. 예수는 ‘얼나’를 스스로 체득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다. ‘얼나’가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는 고로 ‘각(覺)’경험을 통해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내가 곧 예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sup>67)</sup> 반면 다석은 내가 ‘예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느님이 주신 얼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는 하느님이 예수의 마음속에 보낸 얼나가 예수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은 것이다.<sup>68)</sup>

64) 다석은 참나(眞我)를 십자가를 통해 참 살길을 얻 ‘하늘 나’로 표현한다. “하늘 나가 춤춥길없 예수지신 으이아(一 | ·) +(십자가)”(일지 1974,1,28),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 공부』 7권 (서울: 숲, 2001), p.545.

65) 박명우는 그의 논문에서 얼에 대해 세심한 고찰을 하고 있다. 유학자 이기동도 내 육체가 가진 “살려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가진 살려는 마음과 동일하며 살아 있는 모든 물체에 존재하는 그것과도 같다고 했다고 한다. 따라서 박명우는 성(性)은 내 삶을 유지해간다는 측면에서는 ‘개체적’이지만 다른 생명체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이라고 지적한다. 류영모에게 이 ‘성’에 비견되는 참 생명의 존재가 바로 ‘얼’이다. 나아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불성(佛性)에서 ‘성’의 역할을 주시한다. 류영모가 생각하는 불성이란 유교적 ‘성’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하게 인간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류영모는 유교와 불교의 특정 개념을 통해 인간의 특성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했다. 박명우, 「한국적 지역 기독교 신학의 구상」, 『종교간의 대화』 (서울: 현암사, 2009), p.392. 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Myung-Woo Park, *Building a Local Christian Theology in the Context of Korean Religious Pluralism: A Critical Analysis of the Theology of Ryu Yonmo*(University of Edinburgh, 2001), pp.138-140참조.

66) 김흡영, 『가온찍기: 다석 류영모의 글로벌 한국신학 서설』 (서울: 동연, 2013), p.151.

67) 이정배, 「기독교내의 대화원리 모색」,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수행』 (서울: 바오로 딸, 2005), p.241.

68)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다석류영모어록』 (서울: 두레, 2006), pp.97-98.

영원히 오고가는 생명, 마침내 한 생명으로 완성하는 ‘생명’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전체의 생명이지 어떤 시대 어떤 인물의 것이 아니다.<sup>69)</sup> 예수의 영원한 생명은 그의 몸이 아니고 그의 ‘얼’이다.<sup>70)</sup>

예수는 스스로를 빛이라고 칭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요한 12:46)

그런데 다석은 이 ‘빛’을 ‘얼’이라고 풀이했다.

빛은 얼이다. ‘얼나’의 자각 그것이 나는 ‘빛’이다, 라는 말이다. ‘얼나’가 있다는 것은 ‘얼나’를 깨었다는 것이다. 깨었다는 것은 생각이다. 밝은 것이 빛이 되듯이 깬 것이 빛이다.<sup>71)</sup>

예수는 자신의 깨달음과 생각이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느님의 뜻이라고 단언한다(요한 7:16-17) 그 뜻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은 얼생명으로 한 생명이다. 예수의 몸나는 몸의 아버지가 낳았지만 예수의 얼생명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동안 스스로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의 얼을 씨라고 하면 하느님의 얼은 나무에 비길 수 있다.<sup>72)</sup>

그는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나’, 즉 하느님의 아들로 살 수 있게 했다고 생각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나’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다.<sup>73)</sup> 예수와 우리는 ‘얼’을 지닌 입장에서 보면 동등한 인격체이다. 다만 예수는 그것을 깨쳐 하느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렇듯 하느님 아들인 ‘얼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보인이가 예수임을 그는 주장했다.

다석은 예수의 죽음에서 속죄론을 강조하기 보다는 깨달음의 차원<sup>74)</sup>을 더 강조하고 있다.

69)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위의 책, p.295. 다석은 하느님이 보내신 하느님의 얼(성령)을 받은 자가 사람의 아들, 곧 ‘인자(人子)’라고 하였는데 다석은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서 ‘얼나’를 깨달은 사람 모두가 그렇다고 선포하였다. 김진, 『다석 류영모의 종교사상』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12), p.135.

70)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위의 책, p.223.

71)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위의 책, p.108.

72)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위의 책, p.151.

73)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위의 책, p.159.

우리 모두가 ‘얼나’를 체득하게 되면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구속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는 ‘얼나’를 통하여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바로 그 부자유친의 사건을 통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된 것이다.<sup>75)</sup>

## (5) 중용 해석 - 유교의 계시성- 제 종교 모두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종교다

다석의 중용해석은 유학자들의 중용 해석과 다르다. 1968년에 다석은 무등산에서 <중용>을 우리말로 완역했는데,

‘중용’을 중을 동사로 이해해서 ‘줄곧 뚫림’으로 이해하여 ‘속의 속’인 나가 줄곧 뚫림으로서 비워져서 절대 초월자 하느님(성령)과 소통한다고 보았다. 중용은 속의 속이 비고 뚫려서 하느님, 우주 생명, 성령과 소통하는 것이다.

다석이 옮긴 『중용』의 첫머리를 보면 “하늘 뚫린 줄(命)을 바탈이라 하고(天命之謂性), 바탈 타고난 대로 살 것을 길이라 하고(率性之謂道), 디디는 길 사모칠 것을 일러 가르치는 것이니라(修道之謂教)”라는 말이 나온다.<sup>76)</sup> 1962년 12월 18일에 이 대목을 풀이한 글에서는 “하늘 뚫린 줄로 갈 것을 받할이라고, 받할 대로 갈 것을 길이라고 길의 흰한 대로 갈 것을 가르침이람”이라고 했다.<sup>77)</sup>

다석은 중용을 하느님으로부터 성령 받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제시한다.

맹자는 바탈목숨(性命)을 드물게 말했다... 공자는 사람들이 바탈(性)을 생각해야 하는데 굶으면서까지 하느님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우선 이 어린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먼저 밥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기에 관심이 컸다. 유교가 세상일만 가르치는 도덕종교라고 하면 못쓴다. 유교는 성명(性命, 얼나)을 말했다.<sup>78)</sup>

유교가 세상일에 힘쓴 것은 백성들의 의식주를 살핀 것이지 결코 근본적인 유교가 도덕종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석의 사상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얼나’<sup>79)</sup>라고 하는 개념을 유교 또한 기독교에서와 같이 추구했다고 하였으니 기독교나 유교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얼의 종교로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

74) 다석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 된 것이나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얼나’를 ‘깨달음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우리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얼의 씨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석에게 그리스도교는 ‘깨침의 종교’이기도 하다. 김진, 『다석 류영모의 종교사상』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12), p169 참조

75) 김진, 앞의 책, p.181.

76) 박재순, 『다석 유영모』, (서울: 현암사, 2009), p292-293.

77)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공부』 4권, (서울: 숲, 2001), p338.

78)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앞의 책, p453.

79) 다석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짐승 성질의 나를 ‘제나’라고 부르고 하느님께 받은 생명의 씨를 ‘얼나’라고 하여 이 얼나를 발견해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였다.

는 것이다.

우리는 앞의 인용구나 여기서 유영모가 맹자의 성(性)을 ‘바탈’이라 부른 것을 주목 한다. 그가 말한 성(性), 즉 바탈은 하느님의 생명이고 인간의 근본성이다. 다석의 언어로는 앞서 말한 얼나이다. 궁극적으로 로고스나 도처럼 현상계의 지식을 가지고 느낄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늘이면서 실제로 인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참 본질이라 생각했다.<sup>80)</sup>

다석은 인간본성의 이해가 유교에서도 이미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다석의 유교이해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석은 이러한 돌아감을 수행의 일환으로 받아들인다. 그의 받홀은 받아서 한다는 뜻으로 하늘의 사명, 명령, 말씀, 생명을 받아서 한다는 행동적이고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sup>81)</sup> 이른바 자신의 성품을 발달시키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방법으로 바탈타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생명인 바탈(얼나, 성)을 살려 낼 때 참나를 느끼게 된다. 자기의 개성이 자랄수록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에 더 깊은 바탈(얼나)을 느끼게 된다. 자기를 더 깊이 느끼게 될수록 더 깊이 자기 바탈을 찾아내어 타고 가게 된다. 땅을 파들어 가듯이 자기의 바탈을 파고들어 가는데 인생은 한없이 발전해 가는 것이다. 이 바탈(얼나)을 타고 우리는 하느님에까지 이른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듯이 우리는 바탈을 타고 하느님에게 이른다<sup>82)</sup>.

여기서 바탈타기란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확립시키며 결국에는 하느님에게로 이르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씨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일환으로 그것을 길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석은 이를

존심양성(存心養性), 하느님께 나온 바탈을 기르고<sup>83)</sup>

양성사천(養性事天), 즉 바탈을 길러서 하늘을 섬겨야 한다고 설명한다.<sup>84)</sup> 하느님이 주신 우리 안에 내재하는 얼나는 다시 말하면 유교적 언어로 바탈이고 하느님과의 만남은 이 바탈을 길러 즉 태워나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개성화과정’(個性化過程, Individuationsprozess)<sup>85)</sup>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석은 인간이 본래부터 귀한 존재일 수 있는 정당성을 하늘과의 교통을 근거로 대고 있으며 인간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수행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이러한 바탈을 잘 알아서 나간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에게 도달한 것이 기독교이지만 유교에서는 말씀을 이룬 지행일치의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

80) 오정숙, 『다석유영모의 한국적 기독교』, (서울: 미스바, 2005), p130.

81) 박재순, 『다석유영모』, (서울: 현암사, 2009), p293.

82)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앞의 책, p444.

83) 류영모 강의, 박영호 풀이, 『다석마지막강의』, (서울: 교양인, 2010), p48.

84) 류영모 강의, 박영호 풀이, 위의 책, p77.

85)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이 말한 용어로 융은 인간정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사람들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한 개성을 발견하여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하였다. 김성민,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서울: 학지사, 2001), p37-38.

다.”<sup>86)</sup>고 하였다. 공자는 하느님의 명령(얼나)을 모르면 그이(君子)가 될 수 없다고 하며 하느님이 주시는 얼나를 모르고는 하느님 아들(군자)이 못된다고 했다.<sup>87)</sup> 공자나 다석이나 모두 본성의 발견을 통해 성인의 길로 나가는 자기 초월성을 종교의 핵심으로 이해했던 것이다.<sup>88)</sup>

신종추원, 보본 반시

유교에서는 어버이에게 신종추원(慎終追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석은 먼저 하느님에게 신종추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느님으로부터 가지고 온 것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가 삶을 마칠 때 까지 조심조심 삼가는 것이 신중이고 오늘 이 세상을 마치는데 곱게 삼갔으면 다음으로 추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보본반시(報本返始)라는 말도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근본을 잘 해서 시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침내는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9)</sup>

## (6) 태극

다석의 사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을 찾으려면 하느님이다. 그런데 그는 유교에서도 하느님과 성령이 통한다고 보았다.

다석은 “유교가 다신론같이 보이나 하느님 한분을 섬긴다”고 했다. 그 근거로 공자가 “천신이 아닌데 제사지내는 것은 아첨이다.”(子曰 非鬼而祭之 諂也- 『논어』, 『위정편』)라고 말하는 논어의 한 구절을 든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유교 역시 하느님 하나를 가르치고 있다.<sup>90)</sup>

다석은 유교에 ‘주일무적’(主一無適)<sup>91)</sup>이라는 말이 있다고 설명하며 하나(절대)를 넘으로 정했으며 탄 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만을 꼭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다.<sup>92)</sup> 여기서 우리는 다석의 유교적 하느님 이해에 접근한다. 다석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을 유교의 하느님, 즉 ‘태극’(太極)과 동일한 하느님으로 인식하였다. ‘태극’이라고 하는 유교의 절대 개념을 사용하여 하느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석은 그리스도 ‘로고스’를 ‘태극’으로 지칭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서 다석은 ‘로고스 태극’이 결국에는 ‘여호와’ 하느님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86)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앞의 책, p429.

87)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위의 책, p432.

88) 이정배, 「다산과 탁사를 넘어 다석에게로」, 『없이계신 하느님 덜없는 인간』,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9), p251-252.

89)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다석류영모어록』, (서울: 두레, 2006), p436.

90)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위의 책, p49.

91) 유교에서는 ‘주일무적’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도덕적 수용의 방법과 원리를 나타내나 다석은 ‘주일’을 하나를 정했으면 탄 데로 가지 말라, 하나만을 꼭 가지고 있으라는 뜻으로 주체적이고 행동적으로 이해한다. 류영모 지음, 다석학회 편,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9), p303-305.

92)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앞의 책, p429.

요한복음 1장의 logos 思想이 한국에서 ‘말씀’으로 중국에서 ‘도’로 일본에서 ‘kotoba’로 영어에서 ‘Word’로 번역되었다. 나는 이것을 “태초에 말씀(太極 또는 Logos)이 계시니라”고 수정되기를 요망하고 싶다.<sup>93)</sup>

유교의 태극사상을 통하여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다. 다석은 하나, 절대, 태극을 ‘우주 만물의 밑둥’(根本)으로 이해하며.<sup>94)</sup> 유교에서 말하는 태극사상과 기독교의 하느님 사이의 접점을 찾은 것이다. 다석은 상대적인 세계에서 우리들이 하나(절대)를 말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유와무를 다 합친 전체는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뿐이기에 절대이며, 그 절대이자 전체인 하나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이다.<sup>95)</sup>

태극은 하나인 하느님이다. 무한한 공간이요 영원한 시간이다.<sup>96)</sup>.

더 나아가 다석은 태극은 무극(無極)이라고 하며 유교가 말하는 궁극성을 무(無)라고 하는 개념에 비추어 설명한다. 무극은 무이고 허공이다. 그리고 태초이다. 그 근원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알 수 없는 근원인 하느님이 즉 태극이라 했다. 이에 장황거는 “태허로부터 하느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다. 사람이 허공을 아는 까닭에 허공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있다. 허를 알고 기를 알고 하는 게 내 것이다.”<sup>97)</sup>라고 한다. 이러한 허공과 무에 대한 다석의 추구는 그의 불교적 세계관의 밑받침이 된다.

## <불교>

### (1) 탐진치 삼독

불교는 인간이 탐해서 화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탐진치고 설명한다. 다석은 불교를 언급하며 인간은 탐진치 삼독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짐승과 다르지 않으니 이 탐진치를 극복하고 오히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석이 지나 관 계정혜 삼학등 불교적 용어로 특별히 이것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화두 참구나 선정의 방법을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았다. 다만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고 하느님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다.

### (2) 공과 무

다석은 공 사상에 기초해서 만물을 공으로 보고 하느님의 본성도 공으로 보았다. 다석은 무릎 꿇고 앉아서 생각과 명상에 잠긴 것은 불교의 선(禪)을 수행한 것이다. 다석은 1959년 9월에 <반야심경> 강의를 했다. 불교를 가까이 느꼈다. 사람 노릇을 바로 하려면 불교를 알아야 한다고 했고 불교를 모르고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했다. 다석은

93)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공부』 4권, (서울: 숲, 2001), p505.

94) 김진, 『다석류영모의 종교사상』,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2012), p54.

95)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앞의 책, p50

96)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위의 책, p54

97)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위의 책, p457.

자주 예수와 석가를 나란히 언급하였다. 다석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인 “불성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보고 “하느님이 진리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면... 진리의 생명으로 영생한다”고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과 불교를 연결시켰다.

없음, 무, - 없이 계신 하느님

나는 20살 전후에 불경과 노자를 읽었다. 그러나 무와 공을 즐길 줄은 몰랐다. 요 새 와서 비로소 공에 친해졌다. 불교에서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허공에 갈 수 있다고 한다. 간두에 매달려 있는 한 허공에 갈 수 없다. 우주를 담은 허공이 실존이다. 맨 처음에 무가 있었다는 것은 옳은 것 같다. 무는 엄숙하다. 무는 나도 안다며 지내갈 수 없다...나는 빙에 가야 해방된다고 생각한다. 불교나 노자는 한마디로 빙이라 하면 된다.<sup>98)</sup>

불교에서는 초월하여야 하지만 또 살아가야할 이 세계를 ‘공(空)’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다석에게 이 ‘공’이란 단어는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공의 세계, 흑암의 세계가 그에게는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어둠이 빛보다 크다-

1) 존재의 상태

2) 무의식--- 1) 무의식을 신으로

2) 무의식을 매개로 ----1) 하느님을 내속에서

--- 다석의 호

차마 말 못할 사랑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認信仁三二)

그 가운데 벌려진 삼라만상은 참으로 좋아라(參差由來是)

그대 속에서 작은 아들인 내가 영원을 그리며 헤매는데(小子募彷徨)

근본을 찾고 영원을 좇는 날개의 힘은 너무도 미약해(報本追遠微)

생각하고 추리하여 영원에 바로 들어가는 길은(推抽到直入)

자기의 속알을 깨쳐 제 뿌리로 들어가는 길뿐이라(自本自根己)

모르면서 아는 체함은 어리석고 고집일 뿐(不知知痴固)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임을 깨달아 신비의 아버지 만나리(知不知神秘)<sup>99)</sup>

내속에서도 아름다운 천만 골짜기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를 이기고 일어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에 도착하면서 그 동안의 우주의 신비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말고 단단한 마음으로 식색을 끊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내면을 펼쳐 보면 그 속에는 한없는 자유의 우주여행이 가능할 것이다.<sup>100)</sup>

류영모가 그의 내면을 탐구한 연유는 그의 뿌리가 하늘에 닿아 있다고 본 것에서 기인한

98) 박영호, 『다석류영모의 생애와 사상 하』, (서울: 두레, 2001), p67-68.

99) 류영모 지음, 박영호 편, 『다석 류영모 어록』 (서울: 두레, 2006), p.174.

100)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 공부』 2권 (서울: 숲, 2001), pp.31-32.

다. 하늘이 바로 그의 뿌리인 것이다. 내 속의 속을 파고 들어가면 하늘에 닿는다고 다석은 생각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속에 하늘을 품은 존재여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하였다.<sup>101)</sup> 카를 융(C. G. Jung, 1875-1961)의 자아와 자기 개념으로 신비주의를 분석한 바 있는 존 웰치(John Welch)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행은 동시에 자아로 향하는 여행이다. 이 두 개의 목표는 한 가지 여정의 두 측면이다”<sup>102)</sup>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하느님을 탐구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다석도 창조적으로 수용하였다.

### (3) 허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는다. 그리고 빈 공간을 의미 있게 볼 줄 모른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은 흑암이요 온주의 바탕인 허공이다. 우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빈공간이다. 사람들은 빈 것을 모르고 좋아할 줄도 모른다. 크고 찬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빈 것이 실상이요, 우리가 간절히 좇아야 할 대상이다. 다석은

작은 물체는 있다고 하고 큰 허공은 없다고 한다. 무는 빈 것이요, 유는 찬 것이다. 사람은 찬 것을 좋아하고 빈 것을 싫어한다. 동시에 큰 것을 좋아하고 작은 것을 싫어한다. 이것이 모순이 아니겠는가. 큰 것은 좋아하며 빈 것은 싫어하고, 찬 것은 좋아하고 작은 것은 싫어하니 모순이 아니겠는가. 큰 것은 비고, 찬 것은 작은 것인데 큰 것은 가지며 빈 것은 버리고 찬 것은 가지며 작은 것은 버리겠다니 말이 안된다.”<sup>103)</sup>고 했다.

다석은 허공은 존재를 담아내는 그릇이고 모든 사물의 모태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물을 접하는데 있어 새로운 인식의 발상적 전환을 강조한다. “

꽃을 볼 때는 보통 꽃 테두리 안의 꽃만 바라보지 꽃 테두리 걸인 빈탕(허공)의 얼굴은 보지 않습니다. 꽃을 둘러싼 허공도 보아주어야 한다.”<sup>104)</sup>

작품, 시집, 업적, 경전, 보감, 의사당, 교회, 사회 등등은 색계의 그림자다 라고 했다. 다석은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멸망할 ‘색계의 그림자’에 매일 것이 아니라 공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만물은 허공의 존재를 드러내고 허공은 만물을 있게 하고 만물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만일 우주가 꼭 차 있다면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꽃을 있게 할 뿐 아니라 아름답게 하는 것이 허공이다.

101) 박제순,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서울: 홍성사, 2013), p.44.

102) John Welch, *Spiritual Pilgrims: Carl Jung and Teresa of Avila*(New York: Paulist Press, 1982). 김승혜, 「한국 그리스도인의 수행」, 『불교와 그리스도의 수행』 (서울: 바오로 딸, 2005), pp.51-52.

103) 김진 위의 책, p197 명상록 224

104) 류영모 지음, 다석학회 편,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9), p458.



다석은 1955년 7월 8일 일기에서 "물체는 지나치게 빛을 발하여 한없이 멀리까지 밝힐 뜻을 드러내고 허공은 엄마처럼 무척대고 얼싸안아 지극히 작은 나무떨기까지 모조리 친근하게 감싸주려고 한다"<sup>105)</sup>고 하며 허공이 주는 푸근함과 본질성에 대해 설명한다. 그의 허공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흔히 보는 관점을 새롭게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조직리(組織裡)에 들어가서는 허공이 참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허공이 많습니다. 지방에도 빈탕이 있습니다. 몸뚱이 안에도 있습니다. 분자, 전자 사이에도 허공이 작용합니다. 조직 속 속속들이 참여하는 허공이야말로 정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공은 내 맘에 동무를 해서 가없는 존재(하느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하느님을 정중하게 모시고 무량한 진리에 '나'를 던집니다.(1957.3.1.)<sup>106)</sup>

'없음'에 기초한 의식의 변환을 강조하며 사물을 봄에 새로운 눈을 뜨도록 해주는 대목으로 '없음'을 기반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다석의 통찰을 엿볼 수 있다. 다석은 더 나아가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을 거쳐 허공에서 기독교의 하느님의 모습을 본다. 허공이라는 공간을 하느님과 일치시키는 사유를 전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빈탕한데'(허공)가 하느님의 걸모습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의 속 생명은 열(성령)이시다.<sup>107)</sup> 허공이 참인 하느님이다.<sup>108)</sup>

우주의 그 광대한 흑암을 음미한 가운데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만 허영인 대낮의 광명속에서는 하느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흑암을 음미하는 가운데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석은 광명에서 하느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흑암에서 하느님을 본다고 하였다.<sup>109)</sup> 남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광명의 세계에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고 어둡디 어둡 저 흑암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보면 광명의 세계를 넘어서는 보다 큰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일어나로의 변환은 이러한 비어 있는 허공과 흑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허공- 노자의 빕 철학

허공이 하느님이다. 라는 사유 전개- 1) 서구나 브라만

2)니르구나 브라만

우리의 생명이 피어 한없이 넓어지면 빕(空, 절대)에 다다를 것이다. 곧 없이 계시는 일어나로 영생하는 것이다. 빕(空)은 맨 처음이 됨으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일체만물의 근원이다. 곧 하느님이시다. 나도 인격적인 하느님을 생각한다. 하느님은 인격적이지만 사람 같은 인격은 아니라 신격이다. 내가 말하는 인격적이란 '있,없(有無)을 초월한 신

105)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공부』 1권, (서울: 숲, 2001), p102-103.

106) 류영모 지음, 다석학회 편,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9), p479.

107)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앞의 책, p55.

108)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위의 책, p57.

109)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앞의 책, p57.

격으로 전체인 맨 처음이란 뜻이다. 하느님을 찾는데 물질에 만족하면 안 된다. 있는 (有)것에 만족 못하니까 없는 하느님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없이 계신다.<sup>110)</sup>

하느님은 -없이 계신이  
인간은 - 있어 없는 이

길희성은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힘, 무한한 에너지 혹은 생명의 영(Spirit)으로서 동양의 기(氣) 개념에 더 가까운 실재라며 이 에너지 혹은 생명의 영은 신의 속성이나 소유가 아니라 신 자체다. 이러한 신은 모든 유한한 사물과 생명체들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다.”<sup>111)</sup> 라고 설명한다. 신을 허공이라는 불교적 용어로 직접 표현하진 않았지만 에너지 영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다석이 느꼈던 신에 대한 감각을 비슷한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다석에게 있어 영감을 주는 허공의 세계는 인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일까? 다석은 허공자체를 인간의 마음에서 발견한다. 허공과 마음을 하나로 여긴 것이다.<sup>112)</sup> 허공을 정말 가진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마음의 허공으로 있다<sup>113)</sup>고 설명한다.

온갖 일에 별별 짓을 다 봐주는 마음이요/모든 것의 가진 꼴을 받아주는 허공인데 /아마도  
이 두 가지가 하나인 법 싶구먼 <sup>114)</sup>

다석은 여기서 맘과 빚의 일치를 말하는 석가의 가르침과 나와 아버지의 일치를 말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병치시키고 있다.<sup>115)</sup> 다석에게 허공과 마음은 둘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상은 자연스럽게 인간 속에 내재된 불성을 주장하는 불교의 사상을 주목하게 한다. 근원적인 실재가 인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그런 ‘빈탕’과의 하나 된 삶을 추구하는 다석의 사상과 불교의 불성사상은 얼마나 궁극적 실재로 본 다석의 사고 체계 안에서 같은 궤적을 그린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과 허공을 동일시하고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석의 불교이해는 그의 중요한 사상을 불교적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불교에는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이라는 개념이 있다. 본각이란 중생들이 본래 모두 부처의 성품, 본래적 깨달음의 성품 즉 불성을 지닌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자신속의 불성을 깨닫는 견성의 차원이다. 다석은 그의 언어로 본각을 설명한다. 우리가 자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누차 강조한 일나를 우리가 품부 받았으므로 본래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됨 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르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

110)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위의 책, p72.

111) 길희성, 『하나님을 놓아주자』, 『하나님을 놓아주자』, (서울: 새길, 2005), p25.

112) 오정숙, 『다석류영모의 한국적 기독교』, (서울: 미스바, 2005), p114.

113) 류영모 지음, 다석학회 편, 『다석강의』, (서울: 현암사, 2009), p529.

114)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 下』, (서울: 두레, 2002), p97-98.

115) 박재순, 『다석류영모』, (서울: 현암사, 2009), p317.

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며,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공로를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말을 전도시키고 사실 관계를 거꾸로 이해하는 잘못된 교리이다. 사실인즉,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근본적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몸으로 증언하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sup>116)</sup> 이것은 다석이 부인한 대속개념에 대한 이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설명<sup>117)</sup>인 동시에 다석이 가지고 있던 인간이해의 불교적 해석이 될 수 있다. 본각의 입장에서 설명해, 예수님과 우리가 본래부터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또한 일어나를 지니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불교에서 모두가 부처이듯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제나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은 중생으로서의 인간을 바라보게 한다. 여기서 시각의 개념이 들어온다. 시각(始覺)이란 중생의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이라는 본각의 진리를 깊이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자각에 상응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 다석에게는 바로 시각의 과정이 '제나'를 극복하여 '일나'로의 이행을 이루기 시작하는 시점의 깨달음이었다. 본각과 시각이라는 불교적 틀을 적용해 살펴볼 때 다석의 인간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즉 우리 자신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실존적인 위치에 있고 그것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요 수행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본연의 삶으로의 회귀는 그의 도가적인 사상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 〈도교〉

유교, 불교와 마찬가지로 다석은 도가사상<sup>118)</sup>에도 정통했다. 특히 노자를 우리말로 번역할 만큼 도가사상에 심취했었다.<sup>119)</sup> 다석은 21세 때부터 <노자>를 읽었고, 1959년 70세 때 우리말로 옮기고 나서 YMCA 연경반에서 <노자>를 강의했다.

도가의 진리는 도(道)로 표현된다. 다석에 의하면 동양에서의 도는 서양의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sup>120)</sup>도에 대한 그의 견해를 보자.

116) 길희성, 「천국의 영성, 예수의 영성」, 『하나님을 놓아주자』, 2006, (서울: 새길, 2006), p141-142.

117) 이정배 「다석신학속의 자속과 대속, 그 상생적 의미」, 『빈탕한테 맞혀놀이』, (서울: 동연, 2011), p 85-88 참조.

118) 여기서는 도교와 도가를 구별하고자 한다.

다석이 구체적 수양법을 중시하고 해훈이라거나 냉수목욕, 맨손체조 등 그의 일상에서 보이는 독특한 생활습관은 어느 면에서 도교의 다양한 육체적 수양법과 연관이 있다. 이동철, 「동아시아의 종교전통과 한국의 주체적 기독교 수용-유영모, 김교신, 함석헌과 유불도 삼교」, 『서구 기독교의 주체적 수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p33. 단, 다석은 그 자신 스스로 몸을 닦고 길러서 신선의 풍모를 얻었으나 몸을 가지고 장생불사하려는 도교의 경향을 비판했다. 박재순, 『다석유영모』, (서울: 현암사, 2009), p321.

119) 1959년 70세에 우리말로 옮겼다.

120) 박영호 역, 『노자』, (서울: 두레, 2006), p10 도자는 참나인 하느님에 대하여 사람이 취할

또는 로고스, 아트만, 길, 말씀, 꿈틀거림이라고 여러 가지로 불리나, 귀로 듣는 말씀이고 눈으로 보는 로고스고 코로 걷는 길이고 입으로 말하는 꿈틀거림이다. 한마디로 도는 아트만이요 나다. 내가 내가 아니라 도가 나다. 도가 듣고 도가 보고 도가 숨쉬고 도가 말한다. 도가 영체다. 도가 아트만이요, 도가 나다. 도는 생사와 관계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다.<sup>121)</sup>

다석은 도를 숨쉬고 도를 먹는 삶을 살았다.<sup>122)</sup> 다석에게 있어 도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다석에게 일어나이다. 다석의 일어나를 노자는 길로 표현한다. 각각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분모인 열이 노자에게는 길로 드러나는 것이다.<sup>123)</sup>

다석은 “사람은 사람 노릇하고 문(물건)은 문들 절로 되게”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자연의 생명원리에 따르는 ‘맘대로 하고’, ‘몸대로 되게’를 ‘하게, 되게’라 하고 이것을 몸과 마음의 자유로운 경지로 본다. 이러한 ‘하게 되게’의 경지 또한 도가적이다.<sup>124)</sup> 이것은 자연과 몸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은 그저 몸대로, 마음은 그저 맘대로” 놓아두자는 것이다. 이 이치를 다석은 도심(道心)이라고 불렀다.<sup>125)</sup>

이러한 사상은 자연(自然), 곧 스스로 그러하다는 노자의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도덕경』의 25장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라는 구절 속에서 ‘도법자연’을 이강수는 ‘도 자연을 본 받는다’라고 우선 번역한 후 “노자가 말한 자연은 천지만물을 존재하고 움직이게 하는 도의 본질적 성향을 묘사한 것으로 ‘스스로 그러한’ 또는 ‘자연스러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해석한다. 자연이라는 것을 도의 성격으로 보면서 동시에 ‘자연이란 호칭할 수 없는 말이고 궁극적 개념이다’라고 정의한다.<sup>126)</sup> 다석의 몸과 맘의 자유로운 경지가 도가적인 측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저절로 그러함의 도가적 측면을 반영하는 글은 또 나온다.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 자연의 운행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늘의 뜻을 계시할 뿐이다.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이치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이다. 자연의 운행의 이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sup>127)</sup>

다석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이치로서 도를 이해했는데 이는 다시 말해 기독교의 하나님의 행위와 같은 연원을 갖는다. 하나님은 이 세계가 저절로 흘러가게 하는 존재이며, 이것은 위에서 말한 세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치를 도라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sup>128)</sup> 다석이 "모든 것이 절로 절로 될 때 까지 내버려 두고(委) 지켜보면 한참만 그리하면 모든 것

---

마음가짐을 나타낸 글자이다. 참나인 하나님이 계시는 저 높은 곳으로 머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나타낸 회의 문자이다.

121)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공부』, 1권, (서울: 숲, 2001), p 406.

122) 박재순, 『다석유영모』, (서울: 현암사, 2009), p320, 다석의 단전호흡과 냉수마찰과 체로조 몸을 단련하고 금욕생활에 힘쓴 것은 심신을 수련하는 도교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123) 김진, 『다석류영모의 종교사상』,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12), p191.

124) 박재순, 『다석유영모』, (서울: 현암사, 2009), p323.

125) 박재순, 위의 책, p324

126) 김승혜, 이강수, 김낙필, 『도교와 그리스도교』, (서울: 바오로딸, 2003), p55.

127)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 공부』 1권, (서울: 숲, 2001), p111.

128) 이것은 ‘도법자연’에 대한 강지연의 해석이다. 강지연, 「다석사상과 도가사상」,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서울: 나뎅, 2010), p207.

이 제대로 하나 된 것을 너희가 보리라”<sup>129)</sup>라고 한 부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다석은 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정의하며 기독교의 로고스 사상과 연결시킴으로서 유교와 불교에서 발견되었던 궁극적인 하느님을 도가에서도 발견한다. 다석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중시한다. 도가의 대표서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참(일)이 살아계시니 하나(전체)다/하나가 둘(음양)을 낳았다. /둘(음양)이 나니 셋(태극)이다./셋(태극)이 모든 것을 낳았다.<sup>130)</sup>

노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一)는 다석에게 있어 유일무이의 절대존재인 하느님과 상통한다. 하느님이 만물을 만들어내듯이 하나가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느님은 전체의 존재이시고 만물은 부분의 존재이다. 부분의 존재는 언제나 전체와 이어져 있어야 부분의 존재가치를 지니게 된다.”<sup>131)</sup>다석은 하나가 절대이며 전체라고 생각했고 마치 발전소에 연결된 전구에 전기가 보내지듯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그것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도는 하나님이요 다시 하나(일, 一)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전체이며 절대이신 하느님을 가리킨다. 상대세계에서는 하나(一, 절대)라면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다. 유와 무를 다 합친 전체는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라 절대이다. 이 전체요 절대인 하나(一)가 하느님이다.<sup>132)</sup>

여기서 ‘하나’란 불측의 존재로서 있음(유신론)이며 만유에 내재하면서도 초월하는 범재신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나가 밀동, 곧 인간의 바탈(本性)이며 우주 역시 그의 현현이다.<sup>133)</sup> 즉 ‘하나’는 숫자를 가진 모든 유한한 사물들, 차별적 사물들의 배후에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무한한 존재, 무차별적 존재를 나타내는 개념<sup>134)</sup>으로 다석의 하느님은 도가에서의 하나이다. 단 다석은 ‘하나’를 관념이나 원리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정신 속에서 우주 생명 세계의 실재로서 체험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를 ‘하늘’, ‘하느님’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sup>135)</sup> 이러한 하늘, 하느님, 하나의 동일시는 다석을 귀일(歸一)로 이끈다. “하나를 알고 하나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다석에게 ‘하나’는 인격적이고 궁극적 존재이다. 다석은 하나를 알고 하나로 들어가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36)</sup> 하느님계로 안기듯 일자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다. 다석은 「득일」이라는 한시에서 “다른게 없어 하나(전체)를 붙잡아 하느님 속으로(無他得一大我中)”라고 했다. 이는 노자 39장에 나오는 말<sup>137)</sup>로 근본인 하나를 잡음으로서 하느님께 다가간다

129)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 공부』 2권, (서울: 숲, 2001), p608.

130) 박영호 역, 『노자』, (서울: 두레 2006), p220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131) 박영호 역, 위의 책, p205.

132)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다석 류영모 어록』, (서울: 두레, 2006), p50.

133) 이정배, 「귀일사상에 근거한 다석의 유교이해」, 『빈방한데 맞혀놀이』, (서울: 동연, 2011), p 151.

134) 길희성, 「‘하나’ 하나님: 유일신 신앙의 의미」, 『하나님을 놓아주자』, (서울: 새길, 2003), p67.

135) 박재순, 『다석유영모』, (서울: 현암사, 2009), p337.

136) 박재순 위의 책, p339.

137) 박영호 역, 『노자』, (서울: 두레 2006), p 204. 昔之得一者, 天得一以清,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는 다석의 의중을 반영한다.<sup>138)</sup> 다석은 “우리는 하나(一, 절대, 전체, 하느님)로 시작해서 마침내 하나(一)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sup>139)</sup>고 하였다.

우리는 으뜸으로 돌아간다.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로 돌아간다. 귀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맨 처음 나온 데로 돌아간다. 회초하는 것이다.<sup>140)</sup>

절대자에게 귀의하고자 하는 다석의 모습이 도가적인 틀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다석은 또 말하기를 “만법귀일(萬法歸一)이다. 만법귀일이면 하나는 또 어디로 가나. 일체즉일(一切卽一)이요 일즉일체(一卽一切)다. 하나는 다요 하는 하나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와 다가 한가지가 된다. 천지가 일여(一如)요. 생사(生死)가 일여요 모든 것이 다 한가지다.”<sup>141)</sup> 라고 했다. 결국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거처인 귀일(歸一)의 ‘하나’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초월적 근원이자 전체이다.<sup>142)</sup>

다석이 이처럼 하나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근거는 사람이 이처럼 하나(전체)를 찾아 마치않게 생긴 존재<sup>143)</sup>인 까닭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이기에 항상 그곳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석의 인간관이 드러난 대목을 살펴보자.

사람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곧게 일어서는 것은 우(하느님)로부터 온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마치 모든 초목이 태양에서 왔기 때문에 언제나 태양이 그리워 태양을 머리에 이고 그곳을 향해 있듯이 ...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제나 우(하늘)로 머리를 두고 언제나 하느님을 사모하며 곧이 곧장 일어서서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궁신은 식물의 향일성과 같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된다. <sup>144)</sup>

나는 본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나그네였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눈이 멀어, 그 집의 여인에게 붙어사는 가엾은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하늘에 속한 나그네인가, 땅에 붙은 그집네인가. 시집가서 그집네 될까, 하늘에 가서 나그네가 될까. 고디와 사랑으로 고디 곧장 올라가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나그네가 될 것인가<sup>145)</sup>

하나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로 돌아가야 완성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없다. 우리가 유한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한자 하나님을 이 하나를 갈망하고 찾는 것은 모든 유한한 것들이 무한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모상(imago dei)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들로서 우리의 출

138) 강지연, 「다석사상과 도가사상」,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서울: 나뉨, 2011), p 204.

강지연은 여기서 ‘하나’가 통일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139)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다석류영모 어록』, (서울: 두레, 2006), p40.

140)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위의 책, p49.

141)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 공부』, 5권, (서울: 숲, 2001), p507.

142) 이정배, 「기독교의 동양적, 생명적 이해」, 『빈탕한데 맞혀놀이』, (서울: 동연, 2011), p204.

143)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앞의 책, p53.

144)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앞의 책, p39.

145) 류영모 지음, 김홍호 편, 『다석일지 공부』 1권(서울: 숲, 2001), pp.204-205.

치이며 본향이며 원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품을 그리워하기 때문일 것이다.<sup>146)</sup> 우리가 비록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바로 이 유한성을 의식하는 순간 무한자를 동경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상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sup>147)</sup> 이러한 구원이해는 마땅히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로 돌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 전체이자 동시에 개체인 인간 존재이지만 귀일을 위해 자신 속의 신비, 곧 바탈(열)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다. 바탈이란 아직 씨앗일 뿐 만개한 상태가 아닌 까닭이다. 인증천지일(人中天地一)이란 바로 자신 속 바탈의 완성을 통해 천지만물의 화육을 돕고 우주적 신비인 ‘하나’로 돌아감을 뜻한다.<sup>148)</sup>

하나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신비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가다가 날아오르듯이 사람은 추리하다가 초월하게 된다 그리하여 영원한 세계로 직입하여 직관하게 된다. 그런데 초월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속의 자기 밀등을 파고 들어간다. 아버지가 따로 계시지 않는다. 소자 되는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sup>149)</sup>

내속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느님과 만나는 길이라고 하고 있다. 이 ‘하나’인 절대로 돌아가는 것은 다석에게는 나의 바탈, 뿌리로 돌아가는 작업이기도 했다. “생각하고 추리하여 영원에 들어가는 길은 자기의 속알(본성)을 깨치고 자기의 뿌리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sup>150)</sup> 고 하였다.

이 사람은 모든 상대적 존재의 근원인 전체 하나(一)가 열로 없이 계심을 느낀다. ... 나는 참나(眞我)인 하나의 증인이다.<sup>151)</sup>

하나를 찾아가자는 것은 절대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으로 다름 아닌 본래적인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뜻이다.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감은 하느님에게로 간다고 하는 동양적 사고가 엿보인다. 결국 다석의 하나님을 중시하는 사상은 도가의 영향을 받았고 이것은 다석이 다원성을 담지하는데 있어 유교, 불교에 이은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다석은 다원성을 견지한다.

#### <결론>

다석은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을 굳이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모든 사상은 하느님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껏 살핀 대로 다석은 모든 종교들은 하느님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sup>152)</sup> 즉 예수, 석가, 공자, 노자가 결국은 같은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는

146) 류영모 지음, 박영호 편, 위의 책, p 51-52

147) 길희성,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놓아주자』, (서울: 새길, 2008), p51- 52.

148) 이정배, 「귀일사상에 근거한 다석의 유교이해」, 『빈탕한테 맞혀놀이』, (서울: 동연, 2011), p151

149) 박영호, 『다석 류영모가 본 예수와 기독교』, (서울: 두레, 2006), p316.

150) 박제순, 『다석 류영모』, (서울: 현암사, 2009), p341.

151)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앞의 책, p163.

152) 김진, 『다석류영모의 종교사상』,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2012), p190.

것이다. “친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은 것이다. 나를 찾아와서 길은 죄다가 다르지만 예수교, 불교, 유교는 다 다를지 모르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니 이보다 더 좋은 낙이 어디 있겠는가?”<sup>153)</sup>라고 하였다.

각각의 종교가 다들 다른 세계관과 다른 언어로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로 모두가 같다는 것이 다석의 생각이다. 하나의 진리를 저마다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석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종교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통합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sup>154)</sup>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달랐으나 일어나고 하는 그 진리만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다. 다석에 의하면 각각의 종교사상에는 일생명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각각의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분모는 ‘열’이라고 한다. 각각의 종교는 기존의 사상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통찰하고 깨달은 자기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신비, 무슨 신학, 무슨 철학이라고 해서 홀리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제 종교는 진리에 이르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155)</sup> 결국 기독교의 하느님 신앙이 모든 것을 하나로 끌어안으며 유불도를 꿰뚫고 있는 것이다. 부자유친을 하느님 관계로 보고 허공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보고 유, 무 태극과 무극의 통합을 하느님 이라는 끈 속에서 통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sup>156)</sup>

궁극적 존재는 성리학과 불교, 노장사상의 세차원에서 각기 나타나는데 성리학에서는 궁극적 존재가 절대개념으로는 ‘무극’으로 불리는 반면에, 상대적인 개념에서는 태극으로 불린다. 불교사상에서 보면, 초현상의 실체나 현상화된 실체로 나타난다. 현상화된 궁극적 존재는 법신이라고 부르고, 초현상의 궁극적 존재는 부다여래라고 말한다. 노장사상에서 보면, 절대공속에서 초현상의 궁극적 존재는 ‘허극’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현상화된 궁극적 존재는 ‘하나’ 또는 ‘도’라고 한다.<sup>157)</sup> 한편 다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불선의 인간모형인 신선, 보살, 선비의 원형이라고 보기도 했다. 도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승승, 불교의 대승적 인간인 보리살타, 유교의 대표적인 인간인 선비라고 표현했던 것이다.<sup>158)</sup> 따라서 다석에게 무슨 무슨 종교 무슨 무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 미정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인 하느님이고 모든 종교는 이것을 깨달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sup>159)</sup>

또 다른 면에서 다석의 제 종교에 대한 비판도 매섭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 사이를 잇고 있는 ‘열나’로서의 나가 참나인데 열로서의 나가 우주의 열인 ‘한열’과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다석은 노장사상과 무속종교가 너무 몸나에만 관심을 보였다면, 불교는 너무 맘나에만 치중하였고 유교는 너무 맘나의 공동체인 가(家)에만 신경을 쏟았고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역사관 속에 서 제나의 구원에만 유의하였다고 지적한다.<sup>160)</sup> 이런 제 비판을 감안할 때 유

153)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앞의 책, p240.

154) 서현선, 「한국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종교적 대안들에 관한 연구」 『서구 기독교의 주체적 수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p50.

155) 김진, 『다석류영모의 종교사상』,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12), p191.

156) 다석이 이렇게 유불선과 기독교 정신을 종합할 수 있는 이유로 박재순은 다석의 체험적 깨달음을 들고 있다. 하늘과 땅과 자신이 하나로 되는,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체험적 깨달음이 이렇게 동서양의 사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하여 준 것이라고 말한다. 박재순, 『다석류영모』, (서울: 현암사, 2009), p327.

157) 윤정현, 「없이 계시는 하느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서울: 나늬, 2011), p197.

158) 김흡영, 『가운뎃기: 다석류영모의 글로벌 한국신학 서설』, (서울: 동연, 2013), p181.

159) 류영모 말씀, 박영호 편, 『다석류영모어록』, p83-84.

160) 이기상, 「생명은 웅일림을 따르는 몸사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서울: 나늬, 2010), p162.



영모는 기독교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 모든 종교를 초극했다.

바르게 믿는 길은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석가처럼 자기가 믿는 종교를 초극하여 진리되시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석가는 브라만교를 초극했고 예수는 유대교를 초극했다.<sup>161)</sup>

오늘의 기독교 신학은 자연을 한번도 인간의 적으로 간주하거나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동양 사상, 천지만물을 우리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생각해 온 동양의 정신을 철저히 배워야 한다.<sup>162)</sup> 이런 점에서 다석이 동양사상을 통해, 동양사상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창조적으로 바라보려 했던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삼으면서도 여타 동양종교에서도 구원이 있음을 역설한 다석의 태도는 선구적인 다원주의자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을 통해 유교 불교 도교를 대하는 다석의 입장과 그 이해를 다루었다. 다석 스스로의 언어에서 표현되듯이 동양의 유불선과 서양의 기독교는 그 언어와 세계관에서는 동일시될 수 없는 차이를 보이지만 실상은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다석의 주장이다. 서두에 나는 다석이 왜 기존의 기독교에만 만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의 체화된 경험과 확신을 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느낌(일생선)

한 마리면 몇 토막에 한 토막은 몇 점인가  
하루하루 저며내니 어느덧 끝점 하루  
하루는 죽는 날인데 만(萬)날 수만 여기네

맛 없이도 머리 토막 꺾어내어 없이 했고  
세간 한답시고 가운데 토막 녹았으니  
넘게는 무얼 바치나 꼬리를 잡고 뉘웃네

국거리는 못 되어도 찌개라도 하시려니  
찌개감도 채 못되면 고명에는 씌울거니  
성기만 하울 것이면 넘께 돌려보고져

오십구비를 돌아드니 큰 토막은 다 쪼고나  
인간의 도마 위에선 쓸데없는 찌꺼기나  
넘께서 벌려주시면 배부르게 5천 사람(제 17900일)

161) 박영호, 『다석류영모가 본 예수와 기독교』, (서울: 두레, 2006), p143.

162) 길희성, 「하나님을 놓아주자」, 『하나님을 놓아주자』, (서울: 새길, 2005), p33-34.